

전라남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2025년 7월



전라남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일정	2
III. 연수참가자	3
IV. 방문 국가 개요	5
V. 주요 방문지별 내용	8
VI. 연수결과 총평	23
VII. 연수자 소감문	25
VIII. 붙임(기관변경)	67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벤치마킹
- ▶ 청년 유출, 고령화, 지역소멸 등에 대응한 지속가능 및 주민주도형 재생사례 현장 방문

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5. 7. 2.(수) ~ 7. 5.(토) / 3박 4일
- 연수국가 : 일본
- 참여인원 : 43명(시·군의회 의장 17, 공무원 26)
- 보고서 대표 작성자 : 의장 이상주 외 2명
- 내 용 : 우수정책 현장 방문 및 자료탐구
- 주요방문지
 - 치바시의회
 - 사쿠라시의회
 - 이타코 시청
 - 가와바 전원프라자

II

연수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현지시간	주요방문일정
7/2 (1일차)	도쿄	KE2139 전용차량	11:35 15:00	나리타공항 도착 치바시의회
7/3 (2일차)	도쿄	전용차량	10:00 14:00	사쿠라시의회 이타코 시청
7/4 (3일차)	도쿄	전용차량	11:00	가와바 전원프라자
7/5 (4일차)	도쿄	전용차량 KE2130	12:45	나리타공항 출발

Ⅲ

연수 참가자

□ 의장단 명단

연번	의회명	사 진
	성 명	
1	신 안 군 (협의회장)	
	이 상 주	
2	진 도 군 (부 회 장)	
	박 금 례	
3	영 광 군 (감 사)	
	김 강 현	
4	영 암 군 (감 사)	
	박 종 대	
5	해 남 군 (사무총장)	
	이 성 욱	
6	장 흥 군 (대변인)	
	김 재 승	
7	순 천 시	
	강 형 구	
8	나 주 시	
	이 재 남	
9	광 양 시	
	최 대 원	

연번	의회명	사 진
	성 명	
10	담 양 군	
	장 명 영	
11	곡 성 군	
	강 덕 구	
12	고 흥 군	
	류 제 동	
13	보 성 군	
	김 경 열	
14	화 순 군	
	오 형 열	
15	무 안 군	
	이 호 성	
16	장 성 군	
	심 민 섭	
17	완 도 군	
	김 양 훈	

□ 수행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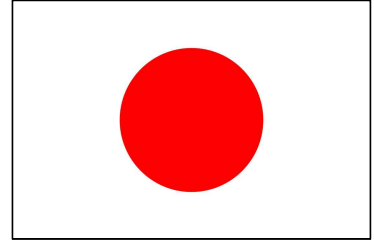
연 번	의회명	성 명	비 고
1	신 안 군	최 근 영	
2	신 안 군	이 승 환	
3	진 도 군	김 진 표	
4	진 도 군	김 준 남	
5	영 광 군	유 재 혁	
6	영 압 군	고 광 섭	
7	영 압 군	이 정 철	
8	해 남 군	정 규 홍	
9	장 흥 군	김 상 수	
10	장 흥 군	김 석 진	
11	순 천 시	서 승 환	
12	순 천 시	신 영 수	
13	나 주 시	김 정 응	

연 번	의회명	성 명	비 고
14	광 양 시	안 형 준	
15	담 양 군	김 찬 우	
16	곡 성 군	이 승 중	
17	고 흥 군	정 민 영	
18	고 흥 군	박 민 재	
19	보 성 군	김 수 철	
20	보 성 군	윤 승 범	
21	화 순 군	정 영 훈	
22	화 순 군	최 상 군	
23	무 안 군	이 종 환	
24	무 안 군	나 형 우	
25	장 성 군	김 영 완	
26	완 도 군	최 재 호	

IV 방문 국가 개요

일 본

Japan



□ 일본의 일반사항

- 위 치 : 아시아 대륙 동쪽
- 수 도 : 도쿄(Tokyo)
- 언 어 : 일본어(Japanese)
- 화폐단위 : 엔(¥)
- 면 적 : 377,975km² (국토교통성, 2025년 1월 기준)
- 인 구 : 123,802,000명(총무성, 2025년 4월 14일)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천황(德仁: 나루히토)
- G D P : 4 조 1,864억 달러
- 종 교 : 신도(47.1%), 불교(42.9%), 기독교(2.7%) 등

※ 출처 : 외교부, KOTRA

□ 개 요

- 정식 국명은 일본국(日本國, Japan)이며, 동아시아 북서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의 4대 본섬과 약 6,800여 개의 부속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 총 면적은 약 37만 8천km²로 한반도의 약 1.7배이며, 인구는 약 1억 2,000만 명 수준이다. 수도는 도쿄로, 세계적인 금융·정치·문화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나라이다.
-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 원수는 천황이나 실질적 정치는 국회와 내각이 담당한다. 행정구역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시정촌 체계도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지방자치 제도는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기초하며,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 일본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국가로, 무사문화와 선불교, 에도시대 건축, 전통 축제 등 다양한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있으며, 현대에는 애니메이션, 패션, 식문화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국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전통 제조업 강국이자 정밀기계·자동차·로봇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 관광, 콘텐츠 산업에서도 활발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도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정치)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국가로, 역사적으로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일 양국은 외교적 긴장과 협력을 반복해 왔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최근에는 안보·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 (경제) 일본은 우리나라의 3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로, 기계·부품·소재 등 제조업 연계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광, 유통, 콘텐츠 산업 등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사회·문화) 양국은 민간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문화·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K-POP, 영화, 음식 등 한류 문화는 일본 전역에 확산되어 있으며, 반대로 일본 애니메이션, 문학, 전통 문화도 국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V

주요 방문지별 내용

1

치바시의회

방문지명	치바시의회	
방문일시	2025. 7. 2. (수) 15:00	
장소	千葉県中央区千葉港1番1号 千葉県役所低層棟4階	
참석자	마츠나카 요시노리 치바시의회의장 외 관계자	

- 치바시의회는 인구 약 98만 명의 정령지정도시인 치바시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 5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 동쪽에 인접한 치바시는 상업, 행정, 교통, 교육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대도시이며, 의회 또한 이에 걸맞게 도시 전반의 복지정책, 도시개발, 환경, 디지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치바시는 디지털 기술과 도시계획을 통합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의회 역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정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민의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 현장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회의 주요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치바시의회는 내부 정책연구조직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조로 보였다. 이 같은 시스템은 현재 전라남도 시군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와 의정자료 분석 TF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었다.

- 또한 정령지정도시라는 위상에 맞게 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위원회 중심의 정책 조율, 통합 감사, 정책 실명제 등은 치바시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요소였고, 이러한 운영 방식은 향후 전남 지역에서 광역 행정 협력사업이나 자치권 확대를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벤치마킹 자료가 될 수 있다.
- 시민 참여 기반도 잘 갖춰져 있었다. 지역주민의 제안과 청원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과 오픈간담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 전반적으로 치바시의회는 대규모 도시행정과 기초의회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사례로, 정책 전문성 강화, 행정 협치, 주민참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었다. 지방의회가 독립됨에 따라 정령지정도시급 기능 확장을 추진하게 될 경우, 치바시의 사례는 제도 설계와 운영 전략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 정령지정도시는 일본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내각이 정령으로 지정한 도시를 말하며, 일반 시보다 더 넓은 자치권을 가진다

□ 치바시의회 방문 사진



치바시의회 환영문구



치바시의회 운영방식 설명




주요정책 질의 응답



치바시 시의회 방문기념촬영

2 사쿠라시의회

방문지명	사쿠라시의회	
방문일시	2025. 7. 3. (목) 10:00	
장소	千葉県佐倉市海隣寺町97番地	
참석자	조지 무라시 사쿠라시의회의장 외 관계자	

- 사쿠라시는 일본 치바현 북부에 위치한 인구 약 17만 명의 중견 도시로, 도쿄 수도권과 인접하면서도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합적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은 사쿠라시의회의 의정 방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총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교육, 도시 정비 등의 분야에서 생활 밀착형 조례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최근에는 고령화, 외국인 인구 증가, 지역 커뮤니티 약화, 도심 재생 등 복합적인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입법 활동과 행정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조직 구조와 고령화된 인구 구성, 청년 유출로 인한 공동체 약화 등은 전라남도의 군 단위 의회가 직면한 현실 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 사쿠라시의회의회는 주민참여형 정책 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단위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구성하거나 행정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읍면 간담회나 찾아가는 의정활동과 유사하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다.

-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보육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지역 내 문화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조례화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 유입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는 전남 지역에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사쿠라시는 중견·소규모 도시임에 예산과 인력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실제 의회의 정책적 역량은 조직 구조보다는 기민한 대응 시스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이에 관련 분야별 작은 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거나, 의원 간 협업을 통해 정책연구형 입법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의 소규모 군 의회가 인구감소와 같은 장기 구조적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도시와 농촌의 복합 구조 속에서 소규모 의회가 지닌 현실적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 사례로, 실용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특히 생활정책 중심의 입법, 주민 참여 확대, 다문화 사회 대응, 협치 기반의 정책 추진 등은 전남의 자치 환경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쿠라시의회 방문 사진




사쿠라시의회 설명 및 질의 응답



사쿠라시의회 방문 기념촬영

3

이타코시청

방문지명	이타코시청	
방문일시	2025. 7. 3. (목) 14:00	
장소	茨城県潮来市辻626	
참석자	스가 기획정책과장 외 관계자	

- 이타코시는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 가스미가우라호 인근에 자리한 인구 약 2만 7천 명의 소도시로, 수로와 전통 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 도시다. 오래전부터 수상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매년 5~6월 아야메 마쓰리(꽃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대표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상 퍼레이드와 전통공연이 어우러져 일본 전국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 기획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이타코시의 행정 방향은 첫째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둘째는 고령화·인구감소 대응에 초점이 있다 했다. 그중 옛 가옥 활용 숙박시설 사례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관광으로 연결해 소득화하는 방식으로, 인상 깊었다. 약 120년 된 전통 목조가옥 이소야마택을 리모델링해 전세형 숙소로 운영하고 있었고, 내부에는 주방, 숙박 공간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그 자체가 문화재이자 관광 콘텐츠인 셈이었다.
- 이소야마택은 단순히 오래된 집을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의 빈집 문제와 관광 자원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였다.

- 시가 공공 정책 차원에서 리모델링과 행정 절차를 지원했고, 지역 주민과 민간이 운영을 맡았다. 숙박 외에도 다도 체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 전통문화 강습 등 복합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이처럼 전통 자산의 재해석, 행정과 민간의 협업,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 구조는 현재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귀촌 정책, 빈집 재생, 지역 특화 관광정책과 높은 접점을 가지고 있다.
- 또한 이타코시는 단순히 관광에 그치지 않고, 관광 수익 일부를 지역 복지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축제 수익은 지역 기금으로 적립되어 고령자 교통비 지원, 지역 공원 조성, CCTV 설치 등에 쓰인다. 이 같은 순환 구조는 단순히 이벤트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했다.
- 마지막으로, 시청 관계자는 “관광은 행정의 외연이 아니라 중심이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는 말을 남겼다. 실제로 이타코시는 지역 상공회의소, 농협, 학교,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업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관광 콘텐츠 또한 외부 기획자가 아닌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 이타코시의 사례는 소도시이면서도 행정의 유연성, 문화자산의 경제화, 주민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룬 실질적인 지역재생 전략이었다. 이는 전남의 군 단위같은 관광·농어업 복합지역에서도 참고할만한 방향성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이타코시청 방문 사진



이타코시 사례 및 주요정책 설명



노후주택을 활용한 이소야마댁 리모델링 사업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



수상교통을 이용한 관광 상품

4 가와바 전원프라자

방문지명	가와바 전원프라자	
방문일시	2025. 7. 4. (금) 11:00	
장소	378-0101 群馬県利根郡川場村大字萩室385	
참석자	가와바전원 프라자 관계자	

-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일본 군마현 가와바촌에 위치한 복합형 농촌체험·관광단지다. 인구 약 3천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도쿄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 전원프라자는 단순한 농산물 직판장을 넘어, 특산품 가공공장,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식당, 마을 체험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일상과 관광의 경계가 흐려진 공간이다. 무엇보다 행정이 주도하는 모델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이 공동 운영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 복지와 공동체 유지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 지역 농업을 6차 산업화한 사례로서도 매우 구체적이다. 마을에서 생산한 유제품·사과·포도·쌀 등이 가공되어 프리미엄 디저트로 상품화되고, 이 제품을 만든 공간에서 바로 식사나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이는 전남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마을가공센터와 비교해도, 상품기획과 공간설계, 운영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지점이 많다.
- 전원프라자의 또 다른 특징은 ‘촌’의 이미지를 재구성했다는 데 있다. 깔끔한 디자인의 건물 외관, 통일된 안내 시스템,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 덕분에 단지가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풍긴다. 전원프라자 관계자는 “시골이지만 도시보다 편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전체적인 구상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세심한 고민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느껴졌다. 전남에서 진행 중인 농촌관광개발이나 청년마을조성사업에서도 이 점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단지를 둘러보며 인상 깊었던 부분은, 관광객을 잠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구조였다.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방문과 정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는 청년 유입이나 귀촌 정책과도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이었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설계한 복합 경제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라남도의 농산어촌 정책에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특히 마을경제 순환 구조, 6차 산업화 체계, 브랜드 전략,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운영방식은 전남 각 시군의 브랜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 방문 사진



가와바 전원프라자 현장 설명



가와바 전원프라자 실제 이용 사례



로컬푸드 산업화 활성화 상품



가와바 전원프라자 기념촬영

- 이번 일본 연수는 전남 시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현지 방문을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주민 중심의 대응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고령 인구 증가와 청년 이탈, 공동체 약화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일본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경제 활력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예를 들어, 이타코시는 노후화 된 전통 가옥을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 활용했고, 사쿠라시의회는 육아와 교육,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해 생활 밀착형 의정을 실현하고 있었다. 또한, 가와바촌은 인구 3천 명의 농촌 마을임에도 주민 주도 6차 산업 복합단지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경제 자립을 이루고 있었다.
- 전라남도 역시 인구 고령화와 청년 유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도내 여러 시군의 현실에 맞는 실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이처럼 현장 사례들은 전남 시군의회가 단순한 행정 감시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실행하는 정책 주도형 의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 앞으로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통 자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주민 주도 경제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관광 수익이 주민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 지역 자산을 토대로 자치를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의회
의장 이상주

□ 총평(시사점)

- 이번 일본 국외연수는 전라남도 시군이 직면한 인구소멸,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의 실질적인 과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방문한 각 기관들은 도시의 규모나 여건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주민 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지역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 특히 고령 인구 증가, 청년층의 이탈, 지역 공동체의 해체 문제는 우리 전남 시군의 현실과 매우 유사했으며, 일본 지자체들의 대응 방식은 실행 가능성이 높고 실천적인 정책 모델로 작용했다.
- 이타코시는 전통 가옥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체류형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고, 사쿠라시의회는 육아·교육·복지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있었다. 가와바촌은 인구 3천 명의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주도의 6차 산업 복합단지를 통해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마을경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 신안군의 경우도 고령화의 빠른 진행, 공동체 약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이번 연수에서 확인한 각 지자체의 실천적 정책 사례는 이러한 신안군의 조건에 대응 가능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이 같은 현장들은 전남 시군의회가 단순히 행정의 견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실행해나가는 ‘정책 주도형 의회’ 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시사해주었다..

□ 정책제언

- (의견 수렴제도 마련) 사쿠라시의회처럼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주민설명회, 시민 제안제도, 온라인 설문조사, 청소년·청년 의회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전라남도 시군에서도 마련해야 한다.
- (빈집활용 및 지역프로그램 개발) 이타코시의 전통가옥 숙박 모델은 신안군과 같은 섬 지역의 빈집 활용 방안과 연계할 수 있다. 섬마을의 오래된 가옥이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지역 농수산물 체험, 생태관광, 어촌문화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다면 신안형 농어촌 복합 모델로 발전 가능하다.
- (주민참여형 마을운영) 가와바촌처럼 주민 주도형 경제구조는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특산물 판매장, 체험장, 마을식당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지역 복지에 환원하는 구조는 지역의 자립성과 주민 참여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순환경제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 단위 운영 기금, 주민참여 예산제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관광수입을 주민 생활로 연결하는 구조는 신안군이 추진 중인 사계절 꽃축제, 수산물축제, 퍼플섬,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과도 높은 연계성을 지닌다. 연수에서 확인한 일본 지자체들의 정책처럼, 지역 브랜드 강화와 더불어 주민 삶의 질 향상까지 연결되는 설계가 요구된다.

- 신안군이 보유한 지역자산을 바탕으로 자치의 틀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섬 지역의 미래 역시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총평(시사점)

- 치바시는 큰 도시의 의회임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돋보였으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음.
- 이타코시의 빈집 활용 정책과 주민 참여형 관광전략인 ‘이소야마댁 프로젝트’는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직면한 우리 지역에 대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정책제언

- 의원 정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바 시의회 사례처럼 의원연구단체 지원과 더불어 개별의원에 정책개발비 지원
- 민간과 행정의 협업으로 지역의 유서 깊은 고택, 한옥, 전통건축 자산 등을 활용하여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닌, 사람·문화·공동체를 되살리는 ‘문화유산 활용형 마을재생 사업’ 제안

영광군의회
의장 김 강 헌

□ 총평(시사점)

- 이번 일본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 운영 현장 방문은 영광군의회 미래 방향성과 운영 방식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본 지방의회는 모든 의원이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의장 역시 특정 상임위원회에 속해 전문성을 쌓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 이는 의장에게 단순히 상징적 역할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구조로, 한국 지방의회와 비교했을 때 매우 차별화된 점이었다.
- 치바시의회가 50명의 의원을 28명의 사무국 인력으로 운영하며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군의회 역시 인력 구성과 운영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적은 인력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적 고민이 필요함을 느꼈다.
- 또한 치바시의회에서 경험한 공청회 중심의 조례 발의 및 심의 과정은 매우 인상 깊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는 구조는 지역민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크게 높이고 있었다.
- 이는 영광군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 사쿠라시 시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 구조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사전 주민 의견 수렴과 실시간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공동 설계하는 모습은 협치의 모범 사례로 꼽을 만했다.
- 영광군의회도 집행부와 소통을 보다 공식화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협치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넘어서, 지역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 자치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었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 방문에서는 소규모 농촌 마을의 혁신적 모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3천 명의 작은 마을이 연간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자립시키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 이 마을은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을 넘어 가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화 모델을 통해 지역자원의 순환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고 있었다. 특히 농업·축산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 출자한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해 주민과 지역 기업이 함께 기획·운영하는 방식은 공동체 결속력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 또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직원의 80% 이상이 여성이며, 지속적인 설문조사로 서비스와 시설을 개선하는 모습은 ‘수요자 중심’의 운영 철학을 잘 보여주었다.

- 이번 일본 방문은 영광군의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체계를 제도화하며, 지역 협동조합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모델을 구축하는 등 다각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선진지 견학이었다.
-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영광군의회가 더욱 발전된 주민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협치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정책제언

- **의회 내 인력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 일본 치바시의회의 사례를 모델로, 의회사무과 인력 구조를 재편하여 실질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줄여 궁극적으로 의정 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화된 구조는 의회가 정책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 일본 치바시와 사쿠라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 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참여 방식을 보다 쉽고 다양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의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오프라인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 수렴 창구를 병행하고, 주요 정책 안건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화된 주민 참여는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수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 집행부와의 협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일본 사쿠라시 시의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기획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 의회도 예산 편성 시 의회와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예산 사전 협의체를 설치하고,
- 공동 워크숍이나 사전 토론회를 통해 의회가 단순히 심의·승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협동조합 연계형 마을 만들기 모델 도입을 제안한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농업·축산·가공·관광 등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과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3섹터 형태의 마을기업을 운영하면, 지역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 영광군 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 주도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농협·축협·산림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경영, 공동 투자 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역 체험 교육 및 공동체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아이들이 직접 농산물 수확과 가공을 체험하며 지역 자원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 영광군도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환경 체험 프로그램, 마을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을 지키고 발전시킬 후계 세대를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결속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 주민 중심의 평가·개선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피드백 수렴을 통해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해왔는데, 이러한 운영 철학은 행정과 의회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 의회도 주민 의견에 기초한 정책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정 활동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회가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총평(시사점)

○ 이번 선진지 비교시찰은 일본 도쿄 및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 사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인구감소·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라남도 각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음

1.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모델 확인
: 이스미시 등에서 고령화·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직접 확인
2. 복합공간 혁신 사례 체험
: 무사시노 플레이스에서 도서관·청년공간·시민라운지를 결합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모델을 확인
3.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습득
: 가와바촌 전원프라자 견학을 통해 직거래장터와 지역 브랜드화 가능성을 실감.
4. 시군의회 간 연대 강화
: 전남도 기초의회 간 교류를 통해 공동 현안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 기반을 마련.

□ 정책제언

1. 귀농·귀촌 및 정주환경 지원 강화
: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정착금 및 커뮤니티 참여 확대 등 지원 정책 필요.
2. 청년 복합공간 조성
: 도서관·문화·창업 기능을 통합한 청년센터 시범 조성 추진.
3. 영암형 로컬푸드 직판장 조성
: 농산물 직거래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공간 조성 필요.
4.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로드맵 마련
: 영암군 실정에 맞는 지역재생 연구용역 추진 및 제도화 필요

□ 총평(시사점)

이번 일본 국외연수는 단순한 행정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가 지역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호흡하며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치바시의회, 사쿠라시의회, 이타코시청, 가와바 전원프라자 등은 각각 대도시, 중소 도시, 소규모 농촌이라는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정책 주체로서의 지방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라남도 해남군의 의정 활동에도 강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첫째 날 방문한 치바시의회는 수도권 외곽 대도시로서, 의회가 단순한 예산 심의 기관을 넘어 정책 입안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책 보좌 인력의 활용은 의원 개개인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으며, SNS 소통과 시민 공모제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연결 고리를 유연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수평적인 협치를 실현하면서도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잃지 않는 구조는 전라남도 지자체의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모델임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날에는 사쿠라시의회를 통해 농산어촌형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모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율 35% 이상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 유입, 지역 산업 연계, 주민 참여형 조례 제정 등 의회 주도의 실천 전략이 뚜렷하였으며, 이는 해남군처럼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공동 설계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는 참여 민주주의의 선진적 형태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날 이타코시청과 가와바 전원프라자 방문은 지역 자립형 경제 모델과 디지털 기반 고령자 복지, 복합 공공시설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가와바의 경우, 인구 3,000명의 농촌이 연간 150만 명을 유치하는 복합형 전원프라자 모델을 주민 주도로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과 정주 유인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 관광이 아니라 교육, 고용, 공동체 회복이 결합된 지역 재생 전략이었으며, 이는 해남군의 마을 단위 경제 모델과 복지·관광 통합 정책 개발에 직접적인 영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연수는 일본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한계와 동시에 그 속에서 찾아낸 창의적인 대응 전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지방소멸 대응 입법, 공공서비스 복합화, 지역경제 순환구조 설계 등은 해남군이 처한 여건과 맞닿아 있는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남군의회가 정책 주도권과 기획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 정책제언

○ 정책개발비 도입 및 정책보좌 인력 활용 제도화

- 치바시의회의 사례처럼 의원 개인에게 일정한 정책개발비를 부여하고, 정책 보좌 인력의 상시 채용을 통해 의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해남군의회의 경우,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연구 및 조례 입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남군 차원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정책개발비 및 보좌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일정한 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의원의 기획력과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해남형 지역소멸 대응 조례 및 주민참여 구조 강화

- 사쿠라시의회처럼, 해남군도 청년 유입과 지역 유지 전략을 의회 차원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귀촌 정착지원 조례’, ‘지역학교 유지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해 교육과 정주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와 조례 입안 전 단계에서 청년·농민·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정책 공청회 제도’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의회의 존재감을 높이고, 실제 정책의 효과성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 복합공간 기반의 지역경제 플랫폼 구축 및 마을기업 육성

- 가와바 전원프라자의 성공 사례를 반영하여, 해남군 주요 읍면 단위에도 농산물 직판장·가공공방·체험시설·관광 인프라가 결합된 ‘전원형 복합 플랫폼’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의 특산물(고구마, 김, 미역 등)을 활용한 6차 산업 가공, 농가 레스토랑, 가족 체험형 관광 상품 등을 마을기업 또는 제3섹터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마을 순환 구조로 연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공간 제공과 초기 운영비 지원을 담당하고, 의회는 제도 설계와 민간 참여 촉진을 맡는 방식으로 정책적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가 정책의 소극적인 감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설계자이자 촉진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남군의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장흥군의회

의장 김재승

□ 총평(시사점)

- 금번 일본 국외연수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고, 의회의 역할과 정책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뜻 깊은 여정이었음.
- 특히 공통적으로 확인된 시사점은 ‘주민참여’와 ‘협치’,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각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으며,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모습은 우리 장흥군과 군의회가 지향해야 할 의정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지방의회는 단순한 의결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민생정책 설계에 더욱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이번 연수는 이를 위한 귀중한 벤치마킹의 기회였음.

□ 정책제언

- 첫째, 장흥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비 활용’과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바시의회처럼 의원 개별 혹은 소그룹 단위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조례제정과 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사쿠라시와 이타코시의 사례에서 보듯 고령화·지방소멸 대응은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사쿠라시의 청년유입과 귀농귀촌 유도 정책, 이타코시의 디지털 기반 복지 서비스는 장흥군 현실에도 충분히 접목 가능하며, 의회가 군정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상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셋째, 가와바 전원프라자의 성공은 ‘주민 주도형 경제 모델’ 이야말로 지방소멸의 해법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장흥군에서도 농특산물 직판, 체험관광, 6차산업 등을 결합한 복합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자립시키고, 주민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이 분야의 정책 설계와 제도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의회-행정 간 협치 체계 강화가 절실합니다. 모든 기관에서 확인된 공통점은 의회가 행정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이루며 공동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군의회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 심의, 조례 제정,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군민의 삶에 직결되는 의정활동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연수를 계기로, 장흥군의회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과 더욱 가까운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총평(시사점)

- 이번 일본 선진지 비교 시찰은 순천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인 지방소멸 대응, 주민 참여 확대, 의정 전문성 강화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치바시, 사쿠라시, 이타코시, 가와바촌 등 각기 다른 규모와 특성을 지닌 지자체들의 운영 사례는 순천시가 처한 현실과 정책 환경을 비추어보는 거울이자, 미래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데 있어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치바시의회는 인구 98만의 대도시형 기초의회로서, 상임위원회 중심의 전문 운영 체계, 정책 전문보좌관 활용, 시민참여형 의정 활동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었다. 순천시의회도 최근 정책지원관 제도 등을 도입하며 의정의 내실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에는 상임위 중심의 조례 발의,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 삶과 직접 연결된 정책 추진 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사쿠라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전략, 청년 유입 및 육아 환경 개선 정책, 주민 의견 기반의 협치 체계 등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순천시 역시 풍부한 자연과 문화유산,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주민 주도형 지역활성화 모델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 이타코시는 전통 가옥을 리모델링한 숙박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운영, 고령자 대상 디지털 행정서비스 도입, 공공시설 통합운영 등 ICT와 주민자산을 융합한 행정혁신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는 순천시 추진 중인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디지털 민원 행정, 빈집 활용 정책 등에 실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농산물 판매, 체험관광, 교육 프로그램, 지역 재투자 등 6차 산업화와 순환경제를 결합한 성공적 마을경제 모델로, 인구 3천 명 규모의 지역이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순천 시도 승주, 별량, 낙안면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형 복합경제모델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제언

- 첫째, 상임위원회 중심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 참여 기반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개별 정책개발비 활용 확대, 연구단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조례 발의 시 공청회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높이는 의정 운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 둘째, 순천시의 지역자산(문화, 자연, 농촌)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정책을 6차 산업화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사쿠라시와 가와바의 사례처럼, 농촌지역에 숙박·체험·교육·가공산업이 융합된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디지털 기반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설

계할 필요가 있다. 이타코시의 QR 민원시스템, 비대면 복지 체계 등을 참고하여, 순천시도 읍면동 단위에서 스마트복지 운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넷째,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가와바 전원프라자처럼, 지역 협동조합과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해당 수익이 다시 지역복지와 환경정비 등에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순천시의 기존 마을기업이나 로컬푸드직매장과 연계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다.
- 다섯째,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관광·가공산업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과 함께 창업 지원, 유연 근무제 등도 병행해야 한다.
- 이번 일본 선진사례 비교 시찰은 순천시가 직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해체, 행정 신뢰 저하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모델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 설계와 집행의 전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특성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자치 정책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 또한 본 시찰을 계기로, 단순한 제도 도입이나 사례 모방을 넘어, 순천시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열린 협치, 실용적 의정,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나주시의회
의장 이재남

□ 총평(시사점)

- 이번 연수는 일본의 기초의회와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며 자치와 협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주시를 비롯한 전남 기초의회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본 각 지역은 제도적 정비와 실행력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변화를 견인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역할이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첫째,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전문화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치바시의회는 단순히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넘어서, 조례 입안과 정책 발굴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 정책개발비 활용, 연구단체 운영, 시민참여 제도 등은 의회의 정책 대응력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나주시의회가 실질적인 정책 설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제도적 기반입니다.
- 둘째,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기초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사쿠라시와 이타코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청년 유입, 정주환경 개선, 공공시설 통합 등 다양한 전략을 의회 차원에서 설계하고 실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나 조례 입안 이전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은, 나주시 의회가 민생 밀착형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해야 할 실질적 운영 모델입니다.

- 셋째, 주민 중심의 경제자립 및 공동체 기반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3천 명의 소규모 농촌 지역이 스스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연간 150만 명 이상의 외부 유입을 유도하며, 경제적 자립과 주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입니다. 그 배경에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제3섹터 조직과,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순환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나주시를 포함한 전남의 농촌·읍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현 가능한 모델이며, 의회가 이런 구조 설계에 직접 참여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넷째, 의회-행정 간 협력구조의 실질화가 지역 문제 해결에 결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의회가 행정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정책 입안과 집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전 의견수렴, 실시간 토론, 공동 설계라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보다 더 높은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주시의회도 예산 및 조례 과정에 있어 더욱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 정책제언

○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및 상임위 체계 내실화

- 치바시의회처럼 정책 전문보좌관 제도 도입 및 의원 정책개발비 활용을 제도화하여, 의회가 단순 감시 역할을 넘어 정책 설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민 참여형 제도 확대 및 청년정책 개발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제, 주민 조례 발의 활성화, 정책설명회 등 참여형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복합공공시설 통합운영 및 디지털 민원체계 확대

- 이타코시의 QR 민원 시스템, 복합공공공간 모델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에 매우 유효하며, 따라서 읍면동 복지회관, 행복센터 등을 통합관리하여 고령자 친화형 디지털 민원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6차산업 기반 조성

- 가와바 전원프라자의 사례처럼, 나주시의 농업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가공·체험이 결합된 복합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을 단위 공동체와 연계한 제3섹터 방식의 운영 법인 설립, 주민 고용 확대, 수익 환원 구조 설계 등 실질적인 마을경제 자립 모델을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 이번 연수는 단순한 벤치마킹 차원을 넘어, 나주시의회가 지역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데 있어 방향성과 구체적 전략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각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의회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행정 감시,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3대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장 최대원

□ 총평(시사점)

- 이번 일본 선진지 비교 시찰을 통해 각 방문지별로 느낀 점과 이를 광양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치바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체계적 운영과 정책 전문보좌관 제도, 시민 정책제안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의정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연구단체와 정책개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조례를 발의하며,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과의 의정 보고회, SNS 실시간 정책 소통 등 시민 참여형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회 역시 상임위원회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비교와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 정책제안제와 온라인 공청회 등 시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의정 보고회와 SNS 등 여러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의 신뢰와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사쿠라시의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여 청년 유입, 귀농·귀촌,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정책과 민관 협력 기반의 도시재생, 관광 그랜드 디자인 등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광양시도 이미 청년·귀농 정책 강화,

체류형 관광, 마을기업 및 민관 협력 도시재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정책과 6차 산업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 이타코 시청에서는 복합공공시설 통합 운영, 디지털 민원 시스템, 주민참여형 관광 정책 등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전통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고령자 대상 QR 민원 시스템, 비대면 복지 응답 체계 등 ICT 기반의 행정 혁신이 돋보였습니다. 광양시 역시 읍면 복합생활공간 확대, 디지털 민원 시스템 도입, 빈집 활용 주민참여형 관광 정책 추진 등 혁신적 행정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타코 시청의 사례처럼, 복합공공시설의 기능적 연계와 공간 효율화, ICT 기반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자산 활용 모델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에서는 복합형 지역 거점 시설, 제3섹터 운영, 6차 산업화, 지역 자원 순환 등으로 연간 1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공적 지역경제 모델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주민과 지역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3섹터 방식은 이익의 지역 환원과 여성·청년 고용 확대 등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양시 실정에 맞는 복합경제 모델 도입, 마을기업·체험 관광 활성화, 제3섹터형 운영, 지역 자원 순환 경제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 정책제언

- 첫째, 광양시는 이미 정책제언 아이디어 공모전, 열린시민정책마켓 등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공청회, 실시간 정책 토론회 등 디지털 기반의 참여 채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접수된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이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제안제도와 교육·홍보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합니다.

- 둘째, 광양시는 농산물가공센터, 치유농업, 로컬푸드 직매장 등 6차 산업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주)네이처프럼, (유)광양매실한과, 참조은돌배 농업회사법인(주), 태인도부각협동조합 등 다양한 마을기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앞으로는 농업, 가공, 관광, 체험이 결합된 융복합 사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주)네이처프럼의 매실 가공식품·체험 프로그램, (유)광양매실한과의 특산품 한과·스틱젤리 개발, 참조은돌배 농업회사법인(주)의 지역 과일 가공 및 체험관광, 태인도부각협동조합의 수제 김부각 제조·판매 등은 지역자원 순환과 주민 주도형 경제구조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마을기업의 전문 경영과 연계 협업, 신규 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광양시는 지역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셋째, ‘MY 광양’ 앱, 생애복지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의 통합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면 복합생활

공간, 주민편의 복합시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 활용 및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등 지역자산의 주민주도형 활용 모델을 확장해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결론

- 이번 일본 선진지 비교 시찰을 통해 각 지역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행정의 구체적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진 정책과 운영 모델을 바탕으로, 광양시의회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설계,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광양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장 장명영

□ 총평(시사점)

○ 지방의회의 정책 설계 역량 강화의 필요성

치바시의회의 전문 보좌체계, 의원 연구단체 운영, 상임위 중심 정책개발은 전남 시군의회의가 지향해야 할 선진모델임.

담양군의회 또한 문화·생태 중심도시의 특성에 맞는 전문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됨.

○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응에서 지역 맞춤형 전략이 중요함을 체감

사쿠라시·이타코시 사례는 담양군을 비롯한 전남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과 닮아있음. 정주환경 개선, 청년 유입 유도, 복지 통합서비스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의정 대응이 시급함.

○ 주민 참여 기반 자치운영이 지역의 신뢰를 이끈다는 교훈

일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시민참여형 조례 제정과 피드백 시스템은 담양군처럼 지역공동체 기반이 강한 곳에 특히 효과적인 모델임. 주민이 신뢰하는 의회가 곧 지속가능한 자치의 기반임을 확인함.

□ 정책제언

○ 담양형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쿠라시처럼 청년 주도 공모제도와 청년 유입 정책을 통해, 담양군도 귀촌 유도·창업 지원·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담은 의회 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가와바 전원프라자형’ 지역경제 모델 도입 검토

담양의 대나무, 생태관광, 로컬푸드 브랜드를 활용하여 가와바촌처럼 6차 산업화된 복합 거점 시설 조성을 제안함. 주민 주도형 경제 순환 모델을 통해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음.

○ 공공시설 복합화 및 디지털 고령자 서비스 확대

이타코시처럼 복지·문화·보건 기능을 통합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고령 인구를 위한 QR 민원, 원격복지상담 등 디지털 기반 고령자 지원체계 구축을 담양에 시범 적용할 수 있음.

○ 지역 연계형 청년귀향 시책 조례 발굴

치바시와 사쿠라시처럼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담양군의 청년의 인구를 늘리는 청년귀향 지원 조례를 발굴 및 신설하여 참여형 민주주의의 진보를 꾀함.

곡성군의회
의장 강 덕 구

□ 총평

- 이번 국외연수는 '지역의 미래는 지역 주민 속에 있다'는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일본 각지에서 만난 지역재생 사례들은 단순한 행정적 접근을 넘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회복과 협력이라는 근본적 가치 위에서 있었다. 그 현장에는 자립과 연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시대정신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 곡성군의회 또한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사람과 마을 중심의 정책을 고민해 왔다. 이번 연수는 그 여정에 있어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특히 지역 인구 감소, 교육 복지 격차, 고령사회 대응 등 우리 곡성이 직면한 문제들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시사점

- (주민 주도 지역재생 모델) 일본의 지역재생 모델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본받아야 할 운영 철학이다.
- (복지 시스템으로 삶의 질 향상)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일본의 복지 시스템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군의 노인복지 정책에도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지역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은 소멸 위기의 농촌에서 공동체의 연속성을 지키는 핵심적 장치로 보였다. 곡성군이 추진 중인 교육특구 지정 및 미래교육재단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많았다.

□ 정책제언

- (주민 참여형 지역 정책 모델) 주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형 지역 정책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 마을회의, 주민참여 예산제, 생활권 단위 의제 발굴 사업 등 실질적인 권한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 (생애 맞춤형 복지정책) 고령사회에 대비한 ‘생애 맞춤형 복지정책’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복지 지급이 아닌, 지역 내 노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 (공동체 기반 교육모델) 교육과 돌봄, 지역경제를 잇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곡성군이 추진 중인 미래교육재단 사업에 일본 사례의 공동체 기반 교육모델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인재 순환과 정주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시찰을 넘어, ‘의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의 자리였다. 군민 곁에서, 군민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의정의 역할을 다시 새기며, 연수의 경험이 곧 정책으로, 정책이 곧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곡성군의회는 더욱 성실히, 묵묵히 걸어가겠다.

고흥군의회 의장 류 제 동

□ 총평(시사점)

- 이번 일본 선진지 비교시찰은 지역소멸과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우리 지역이 당면한 현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들은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구조,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은 고흥군의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감시기관을 넘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설계자이자 지역 재생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와 조례 제정,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의 능동적 개입과 전략적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 정책제언

○ 의회 정책역량 및 주민소통 체계 강화

- 정책개발비 도입, 전문보좌 인력 확보 등 정책설계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 의정활동 공개 확대, 주민 정책공모, 보고회 정례화를 통해 실질적 소통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 및 경제 기반 확충

- 귀농귀촌 정착지원, 다세대 주거모델, 관광과 일자리 연계정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조례 마련이 필요합니다.
- 지역 특화자원(농업·역사·문화)을 활용한 체류형 경제모델 설계에 의회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 복합문화공간 및 생활SOC 고도화

- 도서관·커뮤니티·청년공간이 결합된 복합시설 사례를 반영해 고흥군의 문화·소통 인프라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 향후 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읍면 생활센터 등이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 주도형 지역공동체 모델 육성

-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기반 경제모델 육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 이번 연수는 고흥군의회에 실천적 의정활동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운영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통찰과 실마리를 제공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보성군의회
의장 김 경 열**

□ 총평(시사점)

- 보성군의회는 이번에 일본 도쿄 인근의 치바시의회, 사쿠라시의회, 그리고 이타코 시청을 방문하며 지방자치와 행정운영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 구조, 정책결정의 신속함, 그리고 행정과 의회의 유기적 협력체계였습니다. 특히 사쿠라시의회에서는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제안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이타코 시청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생활 인프라 재편이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치바시의회는 도심과 농촌이 혼재된 구조 속에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중심의 정책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가 단순히 의결기관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지역 플랫폼’ 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보성군의회도 이제 단순한 민원처리기관을 넘어서, 지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자치의 힘을 토대로, 보성다운 자치, 군민과 더 가까운 의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정책제언

○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화

- 사쿠라시의 사례처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산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행정 간 협력 플랫폼 구축

- 일본 지자체들은 의회와 행정부 간 유기적 협업이 잘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보성군에서도 사안별로 행정-의회-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책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해, 실행력 있는 정책 결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 고령화·인구감소 대응형 지역전략 수립

- 이타코 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생활권 재편, 고령자 맞춤 서비스 강화, 스마트 농업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보성군도 현실에 맞는 생활밀착형 인구대응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농가의 지속 가능한 경작 지원과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창업·정착 기반 마련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마을단위 문화자치 활성화

- 치바시의 지역 축제와 문화 거버넌스 사례는 주민 주도의 문화자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성군도 각 읍·면 단위의 문화 기획 역량을 키우고, 군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 풀뿌리 문화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정활동의 디지털 전환

- 의정자료 관리, 회의 시스템, 주민의정정보 접근 등을 전자화한 일본 의회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보성군의회도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화순군의회 의장 오 형 열

□ 총평(시사점)

-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의회의 역할과 정책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 1일차 방문지인 치바시의회는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 규모에 걸맞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 중심 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조례 제정과 정책자료 생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은 우리 화순군의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었다.
- 2일차에 방문한 사쿠라시의회와 이타코시청은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맞서 청년 유입, 귀농 유도, 지역 학교 유지 등 자치입법 중심의 의정활동은 우리 군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시군의회에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타코시의 디지털 기반 고령자 복지 정책과 공공시설 통합 운영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었다.
- 3일차에 찾은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마을이 마을 공동체 주도로 경제 자립 기반을 만들어낸 매우 인상적인 사례였다. 관광, 농업, 체험, 고용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 모델

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선 ‘살아있는 지역경제 플랫폼’이었으며, 이는 향후 우리 군의 6차 산업화 전략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 정책제언

- 이타코시 사례처럼 디지털 기반 민원·복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령층과 도서 산간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QR 민원, 비대면 상담, 원격 복지 플랫폼 등은 화순군의 고령화 지표를 고려할 때 즉시 검토 가능한 분야이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처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합경제 모델과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순군도 6차 산업화, 농촌관광, 마을단위 특산품 브랜드화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의 정책 설계와 행정 유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안군의회
의장 이 호 성

□ 총평(시사점)

- 이번 일본 연수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매우 밀도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각에서 일본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행정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치바시 시의회 및 치바현 사쿠라시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지방 의회와 집행부 협력 관계,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인상 깊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눈에 띄었다.
- 아울러, 이바라키현 이타코시청 직원의 안내로 이타코시의 관광 자원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면서, ‘빈집 활용 정책’ 과 ‘주민 참여형 관광전략’ 을 우리 군에도 접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 끝으로, 군마현의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농산물 직판장, 마을식당, 특산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외부 방문객을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 정책제언

- 주민 중심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의회와 행정의 유기적 협력 체계 마련

- 지역 특성 기반의 산업 및 관광 정책 개발

- 주민 주도형 경제 플랫폼 구축

□ **총평(시사점)**

○ 전남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주관한 일본 국외연수는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현대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 문화 등을 경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고자 추진되었다.

○ 연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본의 다양한 지방의회를 둘러보기 위해 빠빠한 일정으로 소화되었다. 특별히 엄선한 가이드를 통해 지방의회와 관련된 세부적인 해설을 듣고, 지방의회를 시찰함으로써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체제와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여러 지방의회를 돌아보며 가장 크게 주목한 점을 꼽자면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치 기반 구조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례 회의 시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및 집행부와의 실시간 토론 구조를 갖춘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 개방적인 태도와 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의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는 정책 추진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국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면이 크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들의 의사를 듣고 설득하며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아쉬운 면이 다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선진국다운 일본의 면모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었다.

○ 요즘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및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국외의 현장에서 가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얻는 것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4일 동안 일본의 여러 지방의회를 곳곳이 돌아보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장으로서 사고의 시야를 넓히고 문화적, 세대적인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수용성을 늘리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연수 소감을 마친다.

□ 정책제언

○ 치바시의회 의 상임위 운영, 정책전문보좌 인력 활용, 정책자료 생산 시스템은 장성군의회 의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적절한 기능 분리와 협치체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식은, 장성군의회 의 향후 구조 개편 및 역할 정립에도 시사점이 크다.

○ 인구 5만 미만의 농산어촌형 기초의회와 유사한 사쿠라시가 추진 중인 지역 생활 밀착형 조례와 주민 요구 수렴 절차는 장성군의회에서도 참고해야 할 정책이라 사료되며, 장성군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가 형식적이거나 간헐적인 경우가 다소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쿠라시처럼 예산과 조례 과정에서 사전 협의, 공동설계 시스템을 도입한 모델을 참고한다면 실무 개선 방향으로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사쿠라시는 고령화율 35% 이상, 인구 자연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도시로, 이에 대한 의회 주도의 대응전략 수립이 활발하며, 도쿄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한 전원도시 전략 추진. 시청 주도로 진행되는 정주환경 조성, 교통망 개선, 고령친화 정책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방면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참고하여 장성군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 장성군의 경우 현재 광주 인근 첨단3지구와 덕성행복마을 등 다양한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의회를 돌아보며 느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군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 특히 우리는 낡고 오래된 것을 쉽게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하여 가슴 깊이 느낀 것은 시간과 그 시간이 만들어 낸 전통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일본에서 남겨진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 등은 그 자체로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유형의 소중한 재산으로 느껴짐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보다 긴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으로 아쉬움이 남았다.

완도군의회
의장 김 양 훈

□ 총평(시사점)

- 이번 일본 국외연수는 우리 완도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뜻깊은 여정이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치바시, 사쿠라시, 이타코시, 가와바촌 등 일본 각 지역의 지방의회와 정책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 숨 쉬는 모습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
-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행정과의 수평적 협치 구조, 지역 정체성을 살린 정책 설계와 주민 주도의 경제 자립 모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 그 중에서도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소규모 농촌 마을이 주민 주도로 기획하고 운영하여,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마을경제를 살리는 지방자립의 대표 성공모델로, 우리 완도군이 그리는 해양치유 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맞닿아 있는 점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 정책제언

- 완도의 해조류, 유자, 전복 등 지역 특산물, 해양치유자원, 청정 관광지를 연계한 복합형 지역경제 거점인 ‘완도형 전원프라자’ 모델 구축 필요성을 느꼈다. 식당, 체험관, 특산품 가공·판매장, 치유 프로그램을 갖춘 6차산업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완도군과 지역 어업·농업단체 및 청년창업자 공동 출자하여 ‘완도 해양치유전원프라자(가칭)’ 주식회사 설립하고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운영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 의회는 경영 투명성과 지역 환원 구조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예산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전원프라자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기금으로 적립하여 고령자 택시비를 지원하거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낙도 주민들에 대한 복지대금을 지원하거나 환경 정비 등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에서 벌고, 지역에 투자하는’ 선순환 경제 체계를 정착 시켜야 한다.
- 고용은 여성과 청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되 제품 포장과 안내, 교육체험 분야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귀어·귀촌인 창업 연계 및 인큐베이팅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완도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특히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종국적으로는 행정·의회·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완도형 전원프라자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의 사례는 우리 완도군이 직면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 완도군의회는 이러한 해외 우수 사례를 단순한 견학으로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 예산 지원, 정책 실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수신 |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장

제목 「2025년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일정 변경 안내

1. 귀 협회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2025년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일차(7월 3일) 방문 예정이던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부득이하게 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방문 목적 및 연수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대체 가능한 기관으로 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아래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변경 전 방문지	변경 후 방문지	변경 사유
2일차 오전	이스미 시의회 (이스미시, 치바현)	사쿠라 시의회 (사쿠라시, 치바현)	해당 기관 내부 일정 사정으로 인해 수용 불가
2일차 오후	지바현 커뮤니티 마을 (가모가와시)	이타코 시청 (이타코시, 이바라키현)	해당 기관 내부 일정 사정으로 인해 수용 불가

붙임 변경 일정표(1부)

(주) 한별여행사



담당 : 김선영 과장

우 57150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9 함평신문사 내
E-mail : hb-tour@hanmail.net TEL : 061)324-9082

시행 2025.06.27.
FAX : 061)324-9081